

료안지·토지인 관광지도



어서 오세요 교토에! 교토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도시입니다. 하지만 다국어 관광정보가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리즈메이칸 학생, 유학생 프로젝트는 란덴 주변의 다국어 미니 투어 지도(일본어, 영어, 한국어, 중국어간체, 중국어번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광지도를 통하여 교토의 깊은 매력을 느껴주세요, 또 새로운 만남을 즐겨주세요. 감상, 의견, 질문 등은 kkstnet@gmail.com 으로 연락 주십시오.

참조: 교토 역사 회랑 협의회 '교토 관광 학생 유학생네트워크' (URL : <http://kkstnet.org/>) 가 설립되었습니다. 다국어 지도부터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웹사이트 이용 역시 잘 부탁드립니다.

리즈메이칸대학 외국인 관광 프로젝트 팀

-교통안내-

■란덴

어른 200 엔 어린이 100 엔 (보통권)

어른 500 엔 어린이 250 엔 (란덴 1일 프리티켓)

• 키타노하쿠마이쵸(北野白梅町) 방면에서 오시는 법

'北野白梅町'에서 '等持院' 또는 '龍安寺' 하차 (소요시간: 약 3분)

• 아라시아마(嵐山) 방면에서 오시는 법

'嵐山' 또는 '嵐電嵯峨' 에서 '帷子ノ辻' 하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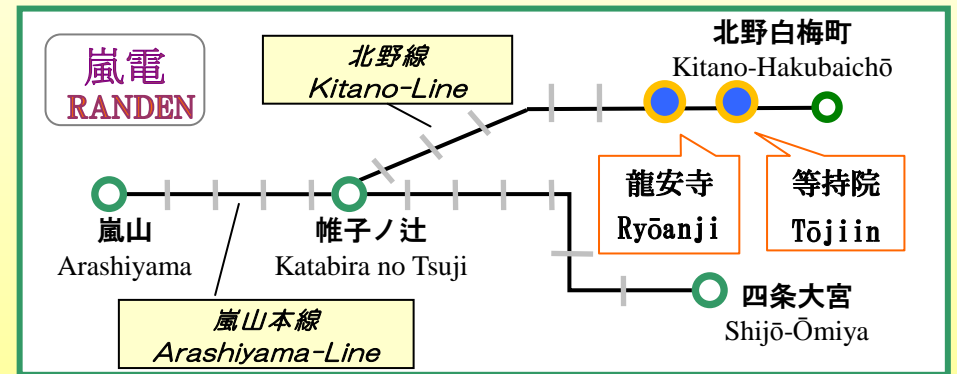
'北野線'으로 갈아탄 후, '龍安寺' 또는 '等持院' 하차 (소요시간: 약 17분)

• 시조오오미야(四条大宮), 사이인(西院) 방면에서 오시는 법

'四条大宮' 또는 '西院' 에서 '帷子ノ辻' 하차.

'北野線'으로 갈아탄 후, '龍安寺' 또는 '等持院' 하차 (소요시간: 약 30분)

* 란덴 (케이후쿠 전차) 노선표 *



■ 시내버스

어른 220 엔 어린이 110 엔 (편도, 하차 시 요금 지불)

어른 500 엔 어린이 250 엔 (1일 승차권)

<료안지>

• 교토역(京都駅) 방면에서 오시는 법

[50 계통] 京都駅前⇨立命館大学前(북측정류장)

[59 계통] 立命館大学前(북측정류장)⇨龍安寺前

*리즈메이칸대학에서 료안지까지 걸어서 약 5분

• 산조케이한(三条京阪) 방면에서 오시는 법

[59 계통] 三条京阪前⇨龍安寺前

<토지인>

• 교토역 방면

[26 계통]

京都駅前⇨等持院南町

• 산조케이한 방면

[10 계통]

三条京阪前⇨等持院南町

세계유산 료안지

료안지는 1994년 금각사, 청수사와 함께 '고도 교토의 문화유산'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교토는 8세기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문화적 중심도시이며 많은 문화 자산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료안지는 선종의 사상을 빼어나게 표현된 돌 정원이 유명합니다. 1450년 호소카와 카즈모토에 의해 선종 사찰이 되기 전까지는 귀족의 별장으로 사용되었는데, 돌 정원의 남쪽에 위치한 연못을 둘러싼 정원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돌 정원과 풀과 나무의 정원. 대조적인 두 공간을 만끽해주세요.

방장정원



흰 모래와 15개의 자연석만으로 구성된 정원. 얼마나 단조로운 정적이 흐르는 자연의 공간인가요. 하루의 빛의 변화에 따라, 날씨에 따라 그리고 계절에 따라 정원은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여행자들이 지금 여기서 보는 풍경은, 사실 시시각각 변화하는

돌 정원의 찰나의 한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돌 정원과 마주보고 앉아있으면 인생의 의미에까지 생각이 미칩니다. 그러한 명상을 통해 이 정원은 보는 이의 마음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석은 전적으로 자유롭습니다만 한가지 재미있는 관점을 소개합니다. 어디서부터 보아야 15개의 돌을 전부 보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은 '하늘에서뿐'입니다. 우리들 땅에 서있는 사람은 여기저기 각도를 바꾸며 시점을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돌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자기 자신의 입장을 넘어 다양한 타인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요.

동전 모양의 츠쿠바이

방장정원의 반대쪽의 복도를 돌아 나가면, 작은 '츠쿠바이'와 만날 수 있습니다. '츠쿠바이'란 다과회를 하러 차실로 들어가기 전, 손을 씻어 부정을 씻기 위한 물이 담긴 돌입니다.



이 츠쿠바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오유지족(吾唯知足)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오직 족함을 알 뿐이다라는 말 그 자체는 선종사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지구를 파괴해나가는 우리들에게도 귀중한 한 마디가 아닐까요.

교요치

이곳이 아직 귀족의 별장이었던 때, 귀족들은 뱃놀이를 하며 자연 속에서 노닐었습니다. 연못의 주변에는 뿔나무와 단풍나무등 풀과 나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계절에 따라 가지각색으로 변하는 모습은 눈을 즐겁게 합니다. 연못을 따라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옛 귀족의 기분을 느껴보는 건 어떠신가요?



추천 장소



참배로를 따라 가다 보면 그 옆에는 물이 흐르는 작은 강이 있습니다. 잠시 물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산 깊은 곳에서 작은 계곡과 만난 듯한 감격이 문득 찾아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다 보면, 참배로의 안쪽에는 신기한 모양의 파고다(전사자의 위령탑)도 보입니다.

또 슬슬 배가 고픈 분들께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두부 레스토랑이죠. 1500엔으로 두부요리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정원을 바라보면서 하는 식사는 아주 훌륭합니다. 꼭 한번 드셔보세요.



세이겐인 료안지명물 나나쿠사 유도후
식사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토지인

토지인은 1341년 무로마치 막부를 연 아시카가 타카우지 장군이 선종의 승려 무소오 국사에게 의뢰하여 창건된 사원입니다. 아시카가 타카우지의 사후, 아시카가 장군가의 보리사(菩提寺)가 되었습니다. 레이코우텐에는 아시카가 역대 장군의 목상이 늘어져 있습니다. 실물을 충실하게 재현되어 제각각 개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본문화는 무로마치 시대 이후 크게 변화합니다. 일본사회를 귀족이 아닌 무사가 깊어지게 된 것과 함께 선종이 발전하고, 공가(公家)문화에 무사의 문화, 선종 사상이 섞여 들어가는 것으로 일본 특유의 새로운 문화가 생겨난 것이지요. 현재의 일본문화는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일본문화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일본 정원, 은각사당에서 보여지는 쇼인즈쿠리의 건축양식, 교젠, 화도, 차도등 어느 것도 무로마치 시대에 확립된 것입니다.



토지인의 정원은 무소오 국사가 만든 교토에 있는 정원 중에서도 삼대 명원의 하나로 불리어집니다. 이 정원도 보는 사람의 어떻게 보고 느끼냐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합니다. 또한 계절, 날씨, 시간대등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원은 유람식 정원이기 때문에 비치되어 있는 샌들을 신고 정원에 내려가 잠깐의 산책 시간을 즐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원을 돌아보면 앞쪽 정원과 안쪽 정원의 모습이 꽤나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앞쪽은 후요우치(芙蓉池)를 중심으로 하는 정원으로, 가을이면 단풍이 볼거리입니다. 또 아시카가 타카우지의 무덤을 참배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객실에서는 빨간 융단 위에서 느긋하게 정원을 바라보면서 차와 과자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참배안내

참배시간 8:00 ~ 17:00 (16:30 접수종료)

※12월 29일 ~ 1월 3일 13:30 접수종료

참배요금 어른·대학생·고등학생 500엔 중학생·초등학생 300엔

차 (과자 포함) 별도 500엔

‘아름다운 정원’을 길러내는 조경 기술



언뜻 보기에 어떤 손길도 가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돌과 나무, 꽃들은 모두 계산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정원사는 언제나 보는 사람의 시점과 서있는 위치를 의식하여 손질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있는 다양한 식물과 돌의 역할을 고려하고, 또한 무엇을 주역으로 하여 눈에 띄게 하고 무엇을 조역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합니다. 이제까지의 형식을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에 걸맞지 않는 경우에는 큰맘 먹고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도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으로 가득 찬 교토는 전통과 혁신이라는 풍토 속에서 뛰어난 정원사를 길러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작은 새의 소리는 어디서부터?

본존석가여래좌상이 안치되어 있는 방장과, 방장정원의 사이에 있는 복도는 우구이스바리라는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우구이스바리는 사람이 그 위를 걸으면 아름다운 새소리가 나는 것 같은 마루로 니쵸성에 있는 것이 유명하지요. 교토에 밝은 사람에 의하면, 토지인의 우구이스바리는 교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사소한 곳에서 즐거움을 발견해내는 감성 속에서 교토 사람들의 장난스러움이 느껴집니다.

절과 일본 영화, 의외의 관계

토지인의 문을 빠져 나가다 보면, 절의 경지 내에 민가가 있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사실예전에 토지인 안에는 영화 촬영소가 있었고 그 터에 민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80년 정도 전, 이 근처에는 수 많은 촬영소가 들어서 많은 명작 영화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일본의 헐리우드’로 불리며 번창했던 것이죠. 토지인 촬영소를 만든 인물이 마키노 쇼조로 경지 안에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는 일본 최초의 영화 감독으로 ‘일본 영화의 아버지’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영화 문화에 흥미를 가진 분이시라면 ‘우즈마사 영화촌’이나 ‘교토문화박물관’에도 꼭 한번 들러보세요.



■가게소개■

쿄쿄모노 키누가사

*료안지에서 걸어서 30 초

*일부 영어 표기, 영어 대응 가능(간단한 회화)

료안지 문 앞의 교토 소품 가게입니다. 가게 안에는 교유젠(염색 기술의 하나), 니시진 직물의 소품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풍의 액세서리, 향, 초등이 있습니다. 오감으로 여행의 추억을 느끼게 하는 상품들이 모여있지요.

●기념품 ※세금포함 가격

네지리마코	1,575 엔	향	630 엔~
치리멘 머리끈	630 엔	젓가락	630 엔~
일본풍 자석(2 개들이)	525 엔	접이식부채	1,575~엔
책갈피/손부채	315 엔	캔들홀더	945 엔



네지리마코(오른쪽)

네지리마코란 니시진 직물 킨란으로 짠 비틀어 여는 화려한 작은 상자입니다. 안쪽 향기 주머니의 향을 즐기며 액세서리나 소품으로 이용해주세요. 왼쪽의 휴대전화 고리 역시 추천입니다.



책갈피(오른쪽)

아주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종류도 풍부하답니다. 가게의 오리지널 상품으로 료안지 둘 정원 디자인의 책갈피를 추천합니다. 왼쪽의 상품은 손부채입니다.



●가게의 메시지

저희 가게는 말하자면 교토 나뭇의 소품의 '전람회장'입니다. 교토의 다양한 전통 공예품과 일본풍 잡화를 준비해두었습니다. 꼭 마음에 드는 '교토의 기념품'을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영업시간 9:30~17:30

*정기휴일 없음

쿄츠케모노 토미가와

*료안지에서 걸어서 30 초

엄선한 교토의 채소를 소재로 살려, 각각 채소에 걸맞은 방법을 고안하여 절이고 있습니다. 꼭 한번 시식해보십시오. 다채롭고 섬세한 맛은 놀라울 정도이지요. 가게 안에는 채소 절임을 맛 볼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츠케모노란



채소를 소금, 쌀겨, 된장과 술지게미 등으로 절인 음식입니다. 토미가와에서는 사계절에 따라 다양한 교토 채소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추천메뉴



오젠자이 500 엔

오젠자이는 팔과 떡으로 만든 단팥죽으로 겨울의 별미입니다. 추운 겨울날 어떠신가요.



쿄오차즈케 680 엔

일본 음식다운 건강식으로 교토에서 만든 츠키모노를 맛 볼 수 있습니다. 료안지를 참관한 후에 런치로 어떠신가요. 채식주의자에게도 추천입니다.



●가게의 메시지

츠케모노는 치즈와 요구르트처럼 몸에 좋은 음식입니다. 많은 종류의 맛있는 츠키모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맛 보아주세요.

*영업시간 10:00~17:30

*정기휴일 수요일

야마네코켄

*료안지에서 걸어서 1분
*영어 메뉴

푸른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입구에서 계단을 내려가면 숨겨진 치유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안정된 공간 속에서 마음을 편히 하고 느긋이 쉴 수 있습니다. 모든 케이크는 가게에서 직접 만든 것이지요. 특히 인기 있는 것은 와플으로 주문한 다음에 굽기 시작하기 때문에 갓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와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크림과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입구



가게 안



●메뉴 (세금포함)

- | | |
|--------------------------------|--------|
| • 베리베리 바닐라 와플 | 850 엔 |
| • 카라멜 푸딩 파르페 | 850 엔 |
| • 두부 시폰 케이크 | 550 엔 |
| • 엽차 시폰 케이크 | 550 엔 |
| • 아사히맥주 | 650 엔 |
| • Macadia Sparkling Wine | 750 엔 |
| • 치킨&칩스 | 850 엔 |
| • 우엉 졸임과 두부 햄버그, 밥, 된장국 | 1000 엔 |
| • 수제소스를 얹은 닭 튀김, 밥, 된장국 | 1000 엔 |
| • 참치와 올리브의 토마토 소스 파스타 (샐러드 포함) | 1000 엔 |



베리베리 바닐라 와플

●가게의 메시지

커다란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는 쾌적한 가게 안에서 맛있는 음식과 다양한 종류의 수제 디저트를 즐겨주세요.

*영업시간: 10:00 ~ 19:00 * 정기휴일: 2,4 번째 목요일

치쿠린노 사토

*료안지 맞은편
*가게 주인 영어대응 가능

다실에 딸린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미니 카이세키, 고젠 요리, 유바 코스 요리 등을 먹을 수 있는 일본식 레스토랑입니다. 물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면 종류(소바, 우동)와 밥 종류를 홀에서 먹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계절의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메뉴는 2 주에 걸쳐 변경됩니다. (특히 카이세키 요리는 메뉴에 실린 사진과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께서는 스텝에게 이야기 해주세요. 친절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메뉴 예시



끓인 두부 고젠 요리



카이세키 런치

(두부요리 · 면요리 · 츠키모노 · 츠크다니 · 밥)

3150 엔 ~

1575 엔



●가게의 메시지

영어도 가능합니다. 신발을 벗지 않고도 의자에 앉아 일본식 정원을 즐기며 식사하는 것이 가능한 '치소쿠안'도 료안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업시간: 10:30 ~ 17:30 (화요일은 15:00 까지 영업)

*라스트 오더: 16:30 *정기휴일: 임시

밤부

*료안지에서 걸어서 바로

유화와 수채화가 걸려 미술관처럼 보이는 가게 안에는 일본 음식과 서양 음식을 둘 다 즐길 수 있습니다. 영어 표기의 메뉴와 채식주의자와 알레르기가 있는 분을 위한 요리도 있습니다

햄버그 런치 셋트 950 엔→



*영업시간: 11:30 ~ 15:30 *정기휴일: 임시

료안지 젠두부 로쿠타

*료안지에서 걸어서 7분
*전화번호: 075-462-1123

갓 만들어진 두부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흐르는 물에 담가 두는 옛날부터의 방법으로 두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층의 식당에는 온두부, 덴가쿠 등 다양한 두부 요리를 한번에 즐길 수 있는 세트 메뉴가 있습니다. 22 석의 좌석이 있기 때문에 그룹으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두부 소프트 크림 온두부 세트 1575 엔~ (3월~10월말까지)과 두부 푸딩도 가게 앞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부로 만든 몸에도 좋은 디저트를 손에 들고 교토를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가게의 메시지

개성적인 두부가게가 많은 교토이지만, 로쿠타의 특색은 간수를 줄여 콩의 맛을 되도록 살리는 것입니다. 스승의 밑에서 독립 한 후 3년에 걸쳐 완성한 오리지널 두부입니다.

두부가게 *영업시간: 8:00 ~ 18:30 *정기휴일: 화요일
식당 *영업시간: 11:00 ~ 15:00 *정기휴일: 화요일

사사야쇼엔

*료안지에서 걸어서 9분
*중국어 메뉴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손수 만드는 것. 전통적인 일본과자의 직접 손으로 만드는 제조 방법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야말로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사사야쇼엔의 방침입니다. 그 한편, 하트 모양의 만쥬(오른쪽. 예약필요)를 만드는 등 신선한 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죠. 변치 않는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들께는 일본에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혼와라비를 사용한 '와라비모치'를 추천합니다.



●가게의 메시지

특히 선별한 자연 소재를 바탕으로 마음을 담아 손수 만드는 일본과자입니다. 교토 음식문화의 절정이기도 한 교토 과자의 세계를 즐겨주세요.

*영업시간: 10:00 ~ 17:00 *정기휴일: 화요일 *전화번호: 075-461-0338

타케자야

*토지인 정문에서 걸어서 1분
*전화번호: 075-463-0226

캠프 요리라고 하면 조금 어렵다는 이미지가 있지 않으신가요? 타케자야는 여주인의 세심한 마음 씩씩이로 마음까지 편해집니다. 집처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느긋하게 계절 느낌이 흘러 넘치는 본격적인 교토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다미방, 카운터석에 더해 의자 좌석도 있기 때문에 다다미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도 안심입니다.



●가게의 메시지

신선한 식재료가 풍부한 니시키시장에서 매일 아침 생선을 들여옵니다.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로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교토 요리의 깊은 맛을 끌어내고 있지요.



*정기휴일: 수요일(벚꽃, 단풍철에는 휴일 없이 통상영업. 예약 필요)

yanagiya kibako

*료안지에서 걸어서 8분

선조 대대로 내려오는 약 2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야나기야 키바코. 양갱을 넣기 위한 나무 상자를 만들고 있으며, 유명한 양갱 가게인 교토 '토라야'에서 쓰이는 나무상자는 전부 이 가게의 것입니다. 가게 안쪽의 작업장에는, 나무 향기와 도구에 둘러 쌓인 주인장이 묵묵히 나무 상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인'의 모습을 엿 볼 수 있는 가게입니다.



소도구 상자 600 엔

●가게의 메시지

양갱 상자 이외에도 소도구 상자도 만들고 있습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삼나무만으로 이루어진 나무 상자는 오늘날 보기 드문 것입니다. 나뭇결이 살아있는 나무 상자를 감상해주세요.



*영업시간: 10시쯤~저녁 무렵 *정기휴일: 임시



- Temple
- Shrine
- School
- Post office
- Police office
- Bus stop

1:18,200
0 100 200 300 400 500m



バンブー Bamboo



山猫軒 Yamaneko-ken



堂本印象記念館 Insho-Domoto Museum



龍安寺 Ryoanji Temple



竹林の里 Chikurin no sato



京こもの 衣笠 Kyo-komono Kinugasa



京つけもの 富川 Kyo-tsukemono Tomikawa



等持院 Toji-in



龍安寺禅豆腐 六田 Ryoanji Zen-Tofu Rokuta



竹茶寮 Takesaryo



笹屋昌園 Sasaya masaen



yanagiya kibako



龍安寺 Ryoanji Temple



仁和寺 Ninnaji Temple



龍安寺 Ryoanji station



等持院 Toji-in station



嵐電北野線 Randoen Kitano Line



北野白梅町 Kitanohakubaicho station



御室仁和寺 Omuro Ninnaji station



妙心寺 Myoshinji station



立命館大 西園寺記念館 Saionji Memorial Hall

京都駅・河原町方面 to Kyoto station Kawaramachi

立命館大学国際平和ミュージアム Kyoto Museum for World Peace

京都駅・河原町方面 to Kyoto station Kawaramachi

嵐山方面 to Arashiyama

立命館大 Ritsumeikan University

等持院 Toji-in

わら天神宮 Waratenjin Shrine

平野神社 Hirano Shrine

北野白梅町 Kitanohakubaicho station

龍安寺 Ryoanji station

等持院 Toji-in station

嵐電北野線 Randoen Kitano Line

御室仁和寺 Omuro Ninnaji station

妙心寺 Myoshinji station

-10-